

“朴대통령이 변해야 정치가 바뀌고 국민이 행복하다”

박지원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고한 대로 ‘정치 변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 변화의 대상과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집약됐다.

◇박 대통령 변화 촉구=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연설 초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노사갈등·역사 문제·외교·남북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플랫폼 정당 만들 것=박 위원장은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중단된 쌀 대북지원 재개, 1석3조 최고의 민생대책” 검찰개혁·우병우 해임 촉구...“사드 찬성 의견도 존중”

정치를 주도해야 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며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세력 위주로 재편되며 정치권에서 ‘제3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세력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을 재차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 더민주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등에 보내는 ‘러브콜’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제안=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 명인 박 위원장은 이번 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 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지적하며 지난 2007년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 재개도 주장했다. 제주도 감귤과 함께 쌀을 북한으로 보내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이 된다는 것이다.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할 ‘폐주기’ 비판에 미리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검찰 개혁 완수=박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검찰로부터 수사례 기소되는 ‘악연’이 있는 박 위원장은 최근 범주계의 대형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다. 또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겠다”고 공언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 촉구도 빼놓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거듭 재확인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연합뉴스

5월 단체 “5·18 흔적 복원” 문화전당측 “예산 없고 개관 또 지연”

유네스코 센터 개소식 충돌 왜?

“별관 활용 일방적 결정”

5월 단체 농성 돌입

전당 운영 차질 장기화 우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핵심시설인 옛 전남도청 본관 원형복원 논란이 ‘제2의 옛 전남도청 별관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시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별관의 철거와 존치 논란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문화전당 건립 차질과 지역 사회 갈등을 촉발했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당시 대립했던 5·18 관련 단체와 문화전당측이다. 5월 단체들은 7일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5월 단체 왜 나섰나=5·18 기념재단 등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지난 1년 여동안 “시민군들의 마지막 항거지였던 도청 본관 등에 있던 총탄자국과 상흔실, 방승실 등의 원형이 훼손됐다”며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측에 공사중단과 복원을 요구해왔다. 이들이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 개소식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옛 도청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특히 유네스코 아태위원회가 이날 개소식을 열고 옛 도청 별관에 준비한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 이후로는 옛 도청 원형 복원이라는 5월단체의 지난 수년간의 요구가 독 허물 어지듯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5월단체를 행동으로 나서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의 상징과도 같은 도청건물은 반드시 복원돼야 하며, 5·18기념관으로 조성돼 1980년의 참상을 후세에 알려야 한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위 센터가 광주로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문화전당측이 유네스코라는 명성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옛 도청 건물의 활용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운영 차질 장기화 우려=문화전당측은 설사 5월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복원 비용 마련이 어렵고 1년 6개월 가량 개관이 지연되는 점이 부

담스럽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문화전당측 추산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원형 복원하는 데는 45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만도 1년 6개월이다. 또 올 안으로 민평을 개관하지 못할 경우 내년 운영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가 개관 여부가 불투명한 공간의 운영비를 예산에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5월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 문화전당의 정상운영이 장기 지연되고, 국책사업을 되돌리고 건물 원형복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교류원은=문화전당 5개원(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창조원, 정보원, 민평) 가운데 하나다. 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25일 개관했음에도 현재까지 유일하게 문을 열지 못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도청본관·별관·회의실,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5월 단체들이 원형 복원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옛 도청 본관은 그 중심 건물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문화예술단체 문화전당장 조속 선임 촉구

광주 문화예술단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2차 공모가 무산된 데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전당장을 재공모해 적임자를 조속히 선임하라”고 7일 촉구했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규모가 작은 기관도 해당 기관의 사업과 운영조직을 준비하고 수장을 선임하여 조직의 출발을 알리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전당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편협한 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중이며 3월 전당장을 공모했다가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고 지난 6월 2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어 10월 초 3차 공모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희호 여사 예방하고 상임고문단 오찬

추미애 대표 통합·호남민심 구애 쟁결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등 당내 통합 행보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추 대표의 이 여사 예방은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 차원으로도 해석됐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전직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새로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고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지지를 부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추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대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구민주계를 포함한 당내 원로들까지 통합해내지 못하면 지도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여사 예방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이 여사를 만났다. 이 여사는 월제이에

앉은 채 추 대표를 맞이하면서도 과거 유학 중이던 추 대표의 아들을 미국에서 만난 일화를 떠올리기도 하고, “여성이 대가 오나 보다”며 덕담도 건넸다.

추 대표가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3남인 김홍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소개하려 하자 이 여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특히 이 여사는 비공개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될 것 같으나”는 질문에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될 것 같다”는 답을 했다. 또 이 여사는 경제 문제, 남북관계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는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잘 되는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추 대표는 취임 직후에 이 여사를 예방하려 했으나 이 여사 측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를 먼저 만났다고 해 예방이 늦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수협 추석 선물세트 판매

*선물세트 전제품 원산지: 국내산(천일염: 국내산)

선어선물세트

- 선어세트(특)** ₩200,000
돔1미(800g), 굴비10미(1kg), 민어3미(1kg), 병어1미(350g), 양태3미(900g), 가자미1미(400g), 서대3미(600g), 갑오징어1미(450g), 새우살1팩(300g), 조기전감1팩(350g)
- 선어세트(대)** ₩150,000
돔1미(600g), 굴비10미(900g), 민어3미(900g), 병어1미(250g), 양태3미(900g), 가자미1미(400g), 서대3미(450g), 갑오징어1미(450g)
- 선어세트(중)** ₩100,000
돔1미(600g), 조기12미(800g), 민어3미(750g), 양태3미(700g), 가자미1미(300g), 서대3미(300g), 갑오징어1미(300g)
- 선어세트(소)** ₩50,000
돔1미(200g), 조기9미(600g), 민어2미(500g), 가자미1미(200g), 서대2미(200g)

진공참조기

- 8 팩(24미) ₩30,000
- 11 팩(33미) ₩40,000
- 14 팩(42미) ₩50,000

주문, 예약 문의

여수수협 수산물 직매장

(여수시 여항단지로 185)
TEL: 061-640-3027, 3081
FAX: 061-642-2763

*택배 발송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바랍니다.